격려사

2006. 1. 1

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김 혜 원 원장

경술년의 희망찬 새아침이 밝았습니다.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, 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도 번영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.

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전기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와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특히 전기제품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수행한 안전교육, 불법 전기제품 단속 등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하고, "2005 국제우수전기제품대전"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전기전자제품들의 우수한 안전성과 뛰어난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지게되어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.

지난 해 우리 경제는 원자재 수급난, 유가와 환율급등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경이적인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. 무역규모 5,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기업활력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. 그 중 전기전자제품 수출액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전자산업이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변화와 개방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세계가 하나의 열린 시장, 한 지붕 밑의 공동체로 통합되어가면서 국가간, 그리고 기업간 경쟁이 더 없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. 또한, 세계 각국은 자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전기제품의 안전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, 이로 인한 세계각국의 엄격한 안전인증요건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커다란 기술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

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없이는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.

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내 · 외 환경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 3월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였고,
지난 10월 1일부터 제품 출고전에 제조업체가 반드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제품을 출고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. 또한,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설립하여, 시 · 도와 함께 연중 불법 · 불량전기용품단속을 전담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최근 웰빙제품이나 주방용품 등 새로운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롭게 31개 품목을 안전인증 관리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.

한편, 불법 · 불량제품의 근절을 위하여 내년부터 온라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관세청 · 경찰청 · 소비자 등으로부터 불법 · 불량 제품에 대한 신고를 상시 받고 시민단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시장 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며,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도 시대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그리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!
최근 국내경제는 내수경기의 침체로 성장이 둔화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간의 무역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,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시련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때 내일은 희망차게 다가 올 것입니다.

우리 다함께 대망의 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활기찬 한 해를 이룰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발전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.
감사합니다.